

기업윤리 브리프스

기업가치를 높이는 청렴경영 가이드

| 국제개발협력과 기업윤리

06

2020 June | VOL. 90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Corporate Ethics



www.acrc.go.kr 기업윤리 브리프스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0년 6월 1일(매월발행, 통권 87호, 비매품) 발행인: 박은정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구독신청: 044-200-7166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민간협력담당관실

☎ 110
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신고

Cover Story



국제개발협력이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개발원조와 그 밖의 정부자금 및 수출신용, 직접투자, 증권투자 등의 민간 자금흐름을 의미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진영이 각자 체제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개발도상국들에 경쟁적으로 원조를 한 것이 개발협력의 시초입니다. 대표적인 수원국이었던 한국은 반세기 만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 우수 국가로 K-방역 모델을 전 세계에 전파,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동향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C O N T E N T S

- 01 **전문가코칭**
국제개발협력과 기업윤리
- 02 **사례들보기**
대한민국,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유일한 나라
- 03 **보고서리뷰**
국제개발협력 활용 가이드
- 04 **SDGs로 알아보는 기업윤리**
국내 기업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사례(3)
- 05 **국내외 동향**
- 06 **행사소식**
- 07 **문화 속의 기업윤리**
다이아몬드에는 피가 묻어 있다 - 『블러드 다이아몬드』
- 08 **지식 1G**
유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ODA)의 분류
- 09 **독자에게 물었습니다**
- 10 **독자퀴즈**



KOICA 이사장
(한국국제개발협력단)

이미경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소개와 많은 국가들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와 배경이 궁금합니다.

과거 한국이 어려울 때, 많은 선진국들이 한국을 지원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1953년 한국의 국민소득은 66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3만 달러를 돌파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에도 가입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가치에 맞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도 중요한 국제사회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지원을 개발도상국에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활동은 중장기적으로 협력국가와 경제활동 및 교류를 원활하게 도와주고 한국의 품격을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본인들과 같이 힘든 시기를 훌륭하게 극복한 나라를 국제사회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에게 배워야 할 모델임과 동시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개발도상



전문가 코칭

국제개발협력과 기업윤리



국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코리안 드림’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상생’과 ‘연대’ 등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단일 국가의 뛰어난 대응만으로는 세계적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더불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국가들의 안전도 도와야 이번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도전과제들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힘을 시험할 것입니다.

국제개발협력에서 우리 기업들이 확인해야 할 글로벌 가치들과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함에 있어서 기업윤리 등 우리 기업들이 신경써야 할 사항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5년 UN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체제를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Leaving No One Behind)’는 핵심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하는 사회, 경제, 환경 분야의 목표들을 설정하고 ‘포용성’과 ‘사람’을 중요한 가치로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은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두고 국제협력을 선도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와 한국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빈곤, 환경오염, 차별,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는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동일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이 마주하는 고객들은 이전보다 환경과 사회적 이슈에 민감합니다.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SV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모델로, 기존의 ‘사회공헌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기업의 사업 기회와 지역사회의 필요가 만나는 곳에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여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CSV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KOICA는 다양한 민간기업, 시민단체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KOICA는 우리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에 미얀마 사업으로 참여한 ‘포이엔’이라는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포이엔’은 버려진 땅콩 껍질로 목재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숯을 제작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 회사입니다. KOICA는 SK에너지와 협력하여 ‘포이엔’의 숯 공장 건설을 지원하여 미얀마 지역주민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 기업인 SK에너지는 탄소배출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지역 공동체 존중, 성비위 근절, 아동노동 금지,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방지 등은 기업들이 당연하게 지켜야 될 사항들입니다. 더 나아가 KOICA는 ‘인권경영현장’을 채택하여 인권위험 영향평가, 인권교육, 인권 대화 등을 개발도상국 사업에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기본적인 행동수칙들을 준수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한다면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이 글로벌 가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전문분야 위원회 중 하나로 개도국에 대한 원조 확대 및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됨. 각종 자원 흐름을 파악하고 회원국 간 원조정책 조정을 담당

**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기존 ODA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 개발협력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



사례돋보기

대한민국,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유일한 나라

- 지난 3월, 코로나19 국제공조를 위한 주요 20개국 특별 화상정상회의가 열렸다. 우리나라는 방역 모범국가로서 전 세계로부터 방역 노하우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원조를 받던 시절을 돌아보면 격세지감이다. 실제로 수원국이 공여국으로 성장한 사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사업보국을 기치로 현신한 1세대 기업인들과 함께 땀 흘린 우리 국민들의 쾌거다.

방역 분야 외에도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전 세계 개발도상국과 개발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사례돋보기에서 정부의 개발협력사업에 협력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국제개발협력의 종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크게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상원조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유상원조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이 주도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각 기관과 협력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당 국가에 보다 수월하게 진출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있다.

① KOICA 개발협력 사례

KOICA는 대외 무상 협력 사업을 주관하는 외교부 산하기관이다.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 대상국과의 경제 협력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캄보디아 - 국내 중소기업의 노하우로 현지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팜슈가는 야자나무에서 추출한 비정제당으로 일반 설탕보다 당지수가 낮고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한 천연 감미료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팜슈가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건기(12월~6월)에 캄보디아 농민들의 주 수입원이

다. 그러나 생산단계의 위생문제, 품질관리, 불안정한 유통·판매 채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세계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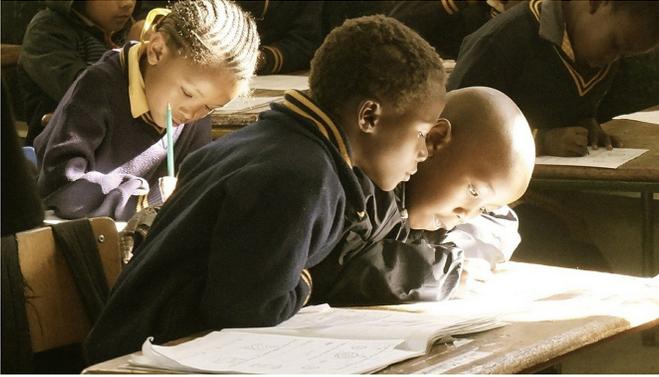
KOICA는 이러한 캄보디아 농가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온라인소핑몰 ‘(주)꽃피는아침마을’과 파트너십을 맺고 2018년 12월부터 ‘캄보디아 팜슈가 비즈니스 가치사슬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3년 동안 투입될 약 13억 원의 재원은 KOICA가 67%, 현지기업과 (주)꽃피는아침마을이 33%를 분담해 마련한다.

(주)꽃피는아침마을은 KOICA와 함께 캄보디아 캄퐁츠낭 지역에 연간 100톤의 팜슈가를 생산 및 가공할 수 있는 규모의 현대화된 가공장을 설립했다. 위생과 품질 향상을 위해 HACCP* 시설을 도입하고 기계화 공정을 통해 생산량을 증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와 소득 증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생산된 팜슈가는 캄보디아 내수 시장은 물론 한국, 미국, 중국 등지로 수출된다.

이는 우리 중소기업이 사업 노하우를 전수해줌으로써 열악한 현지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은 우수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에티오피아 - LG전자의 무상 기술교육으로 청년 취업 및 자립 지원

LG전자는 KOICA와 협력해 에티오피아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2014년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를 설립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해 온 것이다. 선발된 신입생들은 3년간 정보통신, 가전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리 기술을 무상으로 배운다. 현장 실습을 병행하고 컴퓨터와 영어 등도 배운다. LG전자는 한국의 가전수리 명장들을 초청해 학생들을 위한 기술 특강을 진행하고 우수학생과 교사를 선발해 두바이에 있는 LG전자 중동아프리카서비스법인에 연수를 보내기도 한다. 졸업생들은 대부분 LG전자를 비롯한 회사에 취업하고 일부는 습득한 기술을 이용해 창업을 하기도 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자재가 갖춰진 공용 사무공간, 법률 서비스, 사업관리를 위한 실무교육 등도 지원해주고 있다.



②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주도의 개발협력 사례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발도상국들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 기금이다. 수원국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차관 형태로 운영된다. 1987년 설립 이후 전 세계 여러 곳에 개발사업을 진행했으며 원조자금은 17조 8천억 원이 넘는다.



▪ 방글라데시 - 현대산업개발의 노하우로 최고 수준 병원 건설

방글라데시는 최근 5년간 연 7% 이상씩 고도성장하고 있는 나라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문화에도 우호적이다. 방글라데시는 한국 기업에도 기회 땅이다.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에너지 등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 발주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누적 승인액은 12억 4000만 달러로 베트남에 이어 2위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발주하는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방글라데시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중 HDC현대산업개발이 짓고 있는 BSM 대학병원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와 같은 방글라데시 제1의 국립대학이다. 완공되면 방글라데시 최초의 센터중심 전문병원(중증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특화병원)으로 방글라데시 내 최대 규모의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암센터, 강릉아산병원 등 다수의 병원을 건설해왔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HDC현대산업

개발에 이 공사의 의미는 남다르다. 국내 병원 건설의 노하우를 살려 해외 시장의 활로를 더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공사를 지렛대 삼아 방글라데시에 지사를 설립 인프라 및 건축 분야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정부의 유상차관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해당 사업의 수주뿐 아니라 보다 수월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요르단 - 코오롱, 세계2위 물 부족 국가 요르단에 수자원 관리 노하우 전수

요르단은 국토의 80%가 사막 지역으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다. 지하수 의존도와 상수도 누수율이 높아 물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하수시설의 건설이 시급하다. 하수시설이 없으면 생활하수가 버려져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는데, 가뜰이나 부족한 수자원인 지하수나 댐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만성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요르단 정부는 함께 총 9200만 달러가 들어가는 하수처리장 시공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시공은 민간 수처리 운영업체인 코오롱이 맡았다. 코오롱에 따르면 하수 처리시설이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처음 설치 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코오롱 직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이후 코오롱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상하수 처리, 정수장 시설 공사 등을 따내며 수처리 분야 글로벌 강자로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작년에는 탄자니아에서 추진한 관개수로 개선사업 계약을 수주하기도 했다. 수처리 시공은 수주규모가 크지 않아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주력하지 않는 틈새시장이다. 코오롱은 자사의 경쟁력을 무기로 정부 사업에 참여해 수익 다각화와 해외진출 모두 성공한 셈이다.

국제개발협력, 지속가능발전의 교두보

기업들은 시장 개척, 생산기지 확보, 원자재 조달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개발도상국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경험이 부족한 기업으로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우호관계를 위해서는 인건비 절감이나 일회성 프로젝트의 수주보다 수원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바라보는 자세가 먼저일 것이다.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오늘날의 위상을 갖게 된 대한민국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의 롤 모델이다. 그동안 세계시장에서 분투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여왔던 한국기업들에게는 개발도상국들을 도울 수 있는 알찬 노하우들이 많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는 주체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 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

* 자세한 참고자료 리스트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내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리뷰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용 가이드

- 국제개발협력이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있는 개발과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빈곤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빈곤 문제를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한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원조(Aid)라는 용어보다는 폭넓은 개념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아우르는 '국제개발협력'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협력대상국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개괄적인 내용과 기업과의 연관성, 우리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적개발원조의 종류

공적개발원조(ODA)는 전달 경로에 따라 크게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나뉘며, 양자원조는 협력대상국의 상환 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된다.

무상원조는 협력대상국에 상환의무가 없는 현금, 현물, 기술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 유상원조는 민간자금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양허성 공공차관 등 법적 채무가 있는 현금, 현물 이전을 의미하며, 상환할 의무가 있다.

다자원조는 협력대상국의 경제, 사회 개발 및 환경, 빈곤, 여성개발 등 범분야 과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UN 등의 국제기구 활동에 재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다자개발은행에 자본금을 출자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협력방식으로 구성된다.

국제개발사업과 기업

2015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채택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개발목표가 사회개발, 경제개발, 환경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성, 기술, 자원 등을 지닌 민간의 참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확대는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세계 연간 공적개발원조(ODA) 조달시장 규모는 약 1,36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국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참여 기회도 보다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원활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참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개발컨설팅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ODA

2019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확정액 규모는 약 3조 2,003억이었다. 이는 2018년 보다 5%(1,521억 원)가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이래 지속적으로 규모를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공적개발원조(ODA)/국민총소득(GNI) 비율은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회원국 전체 평균인 0.31%의 절반 수준인 0.14%에 불과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0.3%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2018년 기준 아시아 약 38.8%, 아프리카 약 21.6%로 두 지역에 전체 공적개발원조(ODA)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유상원조의 경우 아시아 56.5%, 아프리카에 27.7%가 지원되어 전체의 83% 이상 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상원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협력국과의 경제교류 증진을 위해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중 유상협력을 위해 조성되었다. 협력대상국을 소득 수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 금리 및 상환기간을 차별화 하고, 장기(40년 이내 만기), 저리(0.01~2.5%)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은 '사업 발굴 및 준비 ▶ 협력국 정부의 지원신청 ▶ 수출입은행의 사업 심사 ▶ 정부지원방침 결정 ▶ 차관 계약 체결 ▶ 사업실시 ▶ 완공 및 사후평가' 순으로 추진된다. 사업발굴 및 준비단계에서는 국가협력전략(CPS)을 바탕으로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우선 지원대상이 되며, 후보사업은 협력대상국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책협의에서 논의된다.

협력국 정부는 소정의 지원 요청서, 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 사업실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을 결정하며, 이후 양허성 차관 지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 명시된 공여협정 및 자금의 용도와 기본 지원조건 등이 명시된 시행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한국수출입은행과 협력대상국 정부 간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명시한 차관 지원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효력을 갖게 된다.

우리 기업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참여방법

우리 기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①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타당성조사(F/S, Feasibility Study) 등에 대한 참여, ②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한 협력대상국 발주사업 컨설턴트로 참여, ③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한 공급자 선정에 대한 참여로 나누어진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사업의 준비,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컨설턴트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협력국은 해당 프로젝트 분야의 실적, 과업 수행방법, 인력, 재무건전성, 기술 조건 등을 고려하여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사업에 소요되는 재화와 용역 제공을 위한 공급자 선정은 협력국 정부의 책임하에 해당국의 조달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입찰예정 사업과 입찰공고문, 관련 양식 및 기타 상세 정보는 대외경제협력기금 홈페이지(www.edcfkorea.go.kr) 및 odakorea 홈페이지(www.odakorea.go.kr),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상원조와 KOICA(한국국제협력단)

우리나라의 무상협력사업을 담당하는 KOICA는 1991년 설립 이래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협력대상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해외봉

사단파견, 초청연수, 민관협력, 해외긴급구호, 국제기구협력 등의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44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무상협력 사업 중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발굴협의 ▶ 공식사업요청서 접수 ▶ 예비 조사 ▶ 사업심사 ▶ 기획조사 및 집행계획 작성 ▶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집행 ▶ 사업평가 ▶ 사후관리' 단계를 거쳐 추진된다. 우리 정부는 중기전략 및 국가협력전략(CPS)을 토대로 협력대상국 정부와 사업 발굴 협의를 추진하며, 사업시행자는 협력대상국의 빈곤감소 전략 및 국가개발계획상의 개발과제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재외공관을 통해 협력국과 협의를 실시한다. 이후 협력대상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개요서(PCP, Project Concept Paper)를 접수한 후 외교경로를 통하여 협력대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총괄기관의 공식사업요청을 접수하며, 사업개요서(PCP)를 바탕으로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타당성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심사를 통해 추진사업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KOICA 사업 참여방법

KOICA는 협력대상국의 특정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물적 수단(Hardware)과 인적 수단(Software)을 결합한 다년간의 종합 개발협력사업인 국별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별협력사업은 건축, 시설물, 기자재 등의 하드웨어와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프로젝트형 사업'과 소프트웨어 및 제도 구축 지원에 특화된 기술협력사업인 '개발컨설팅 사업'을 포괄한다. 사업 수행자는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며, 국별, 분야별, 형태별 상세한 입찰 관련 정보는 odakorea 홈페이지(www.odakorea.go.kr), ODA 정보포털(www.oda.go.kr) 및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OICA는 국별협력사업 이외에도 글로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민관협력 혁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비창업자나 창업 후 업력이 10년 이내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은 사업 형태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CTS 홈페이지(www.koica-cts.com)를 통해 자격조건 등 세부정보 확인 및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KOICA와 민간 파트너간 매칭펀드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다양한 해외 기관들과 협업하는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는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의 기관 공모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관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은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국가이지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무를 이끌어가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기업에는 다양한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수원국에는 도약의 마중물이 되어주는 국제개발협력.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

■ * 참고 자료 - 『국제 개발협력사업 활용 가이드(KOTRA 발행)』에서 발췌 후 편집



SDGs로 알아보는 기업윤리

국내 기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 사례(3)

-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코스피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는 ▲기후변화(71%), ▲지속가능한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55%), ▲교육(50%),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42%) 순으로 이어진다.

이번 호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가지 목표 중 4번째 목표인 양질의 교육의 세부 목표를 살펴보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국내 기업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SDGs의 목표 4. 양질의 교육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2위를 기록했다. 경제뿐만이 아니다. 한국어를 배우려고하고 능숙하게 구사하는 외국인들도 크게 늘어났다. 이제 한국은 경제, 문화, 의료,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었다. 한국전쟁 직후 미군들에게 원조 물품을 구걸하던 전쟁고아들의 나라가 불과 70여 년 만에 천지개벽한 것이다.

이처럼 놀라운 역사의 배경에는 한국의 남다른 교육열이 있다. 대학이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牛骨塔)이라 불릴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온 나라가 아이들 교육에 사력을 다한 셈이다. 그 결과 지나친 사교육 열풍 등 부작용도 크지만, 원조로 먹고살던 세계 최빈국이 오늘날의 경제대국이 된 원동력에는 교육의 힘이 무엇보다 컸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 지구 환경 문제,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7가지 실천 목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교육’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교육은 개인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자 빈곤 탈출의 본질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Goal 4: 양질의 교육]

세부목표	내용
SDGs 세부목표 4.1	모든 여아와 남아의 양질의 초·중등 교육의 무상 이수 보장을 목표로 한다.
SDGs 세부목표 4.2	모든 여아와 남아가 영유아 발달, 보육,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SDGs 세부목표 4.3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기술,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SDGs 세부목표 4.4	취업에 필요한 직업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의 수 증대를 목표로 한다.
SDGs 세부목표 4.5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 해소 및 모든 취약 계층의 교육에 대한 접근 보장을 목표로 한다.
SDGs 세부목표 4.6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DGs 세부목표 4.7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DGs 세부목표 4.a	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환경 제공을 목표로 한다.
SDGs 세부목표 4.b	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도국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대폭 확대를 목표로 한다.
SDGs 세부목표 4.c	개발도상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한 우수한 교원 공급의 대폭 확대를 목표로 한다.

국내 기업 사례

우리 기업들은 이와 같은 UN의 목표에 동참하고 교육을 통해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네 번째 목표인 '양질의 교육'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실천 사례들이다.

01 하나은행 - 새터민을 위한 금융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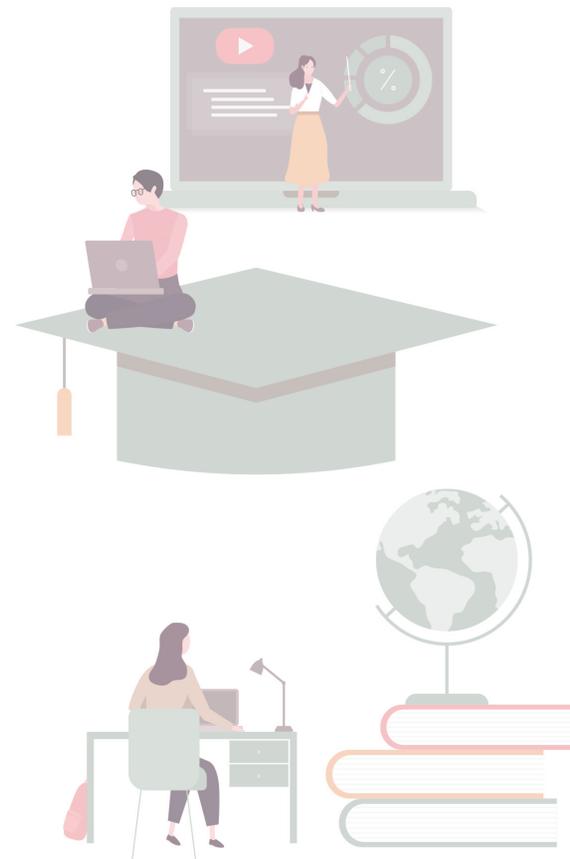
하나은행은 탈북 새터민들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새터민들은 이념, 문화, 가치관은 물론 언어습관, 교육 수준도 우리 국민들과 다르다. 자연히 취업도 어렵다. 애써 일자리를 얻어도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기를 당할 위험도 크다. 그래서 새터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중 하나가 경제교육이다.

하나은행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하나원 정기 금융교육'을 하고 있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새터민들이 한국에 들어와 처음으로 교육을 받는 곳이다. 하나은행은 창작뮤지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따뜻한 경제 지식을 보다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2 아시아나항공 - 저소득층 현지 여성을 위한 취업교육

아시아나항공은 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국내외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교육기부를 하는 아름다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현지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피아노, 컴퓨터 등 학습용품을 지원하고 승무원 직업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비영리단체 굿피플과 함께 저소득층 현지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베트남-아름다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72명의 학생들이 6개월간 한국어, 영어, 컴퓨터, 회계 등 취업과 연계된 강의를 들었다. 아시아나항공 현지 승무원과 공항 서비스직 강사에게 실무교육도 받았다. '베트남-아름다운 교실'을 수료한 학생들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에 나서고 있다.



*참고 자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홈페이지
 하나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8
 아시아나항공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6
 KOICA(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국내동향



해외동향

기업의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저금리 대출 혜택 가능해져

대출금리 설정 방식에 차입기업의 지속가능 활동을 연계하는 상품인 지속가능연계대출(SLL)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차입기업과 대출은행의 협의에 따라 선정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은 낮은 금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서유럽 중심으로 성장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 금융회사들도 기업대출 심사나 조직 내부적인 활동에 ESG 지표를 반영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카드와 크레비스가 올해 3월부터 기업대출 심사 및 투자에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ESG 등급을 반영하기로 발표했다. KB금융과 신한금융 등은 올 들어 ESG 도입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때 적용되는 ESG 평가기준은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온실가스, 에너지, 친환경 관련 지표들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기업대출과 달리 외부의 ESG 평가기관이 차입기업의 지속가능 활동 평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 거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 참고 - 헤럴드경제, 2020.05.02
주목 받는 '착한 대출', '지속가능연계대출'이란?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502000062>

유통업계, 환경보호 캠페인 활발

최근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포장재 사용으로 폐기물 배출 비중이 큰 유통업계가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동원산업은 생분해성 필름으로 코팅된 종이팩에 물만 담아 열린 친환경 아이스팩을 도입하고 필(必)환경 경영 강화에 나섰다. 기존 아이스팩은 플라스틱 성분의 아이스젤로 채워져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싱크대나 하수구에 버릴 경우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왔다.

현대홈쇼핑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프라이팬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한다. 프라이팬은 버릴 때도 손잡이를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 데다, 대형 아파트를 제외하곤 분리배출이 어렵다는 고객들의 의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러쉬코리아는 냉장 배송에 사용하는 모든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변경했다. 박스는 100% 재생지 보냉 상자를 선택했다. 제작 과정에 재생지를 활용함으로써 새롭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출된 폐기물이 인체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순환한다는 것이 널리 각인되면서 기업에 친환경적인 경영을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아시아경제, 2020.05.16
유통업계 '친환경 캠페인' 계속된다... "환경 적신호에 응답"
<http://www.asiae.co.kr/article/2020051611423627878>

*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 기업이 직원과 고객, 주주, 환경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지배구조는 투명한지를 비재무적인 틀로 따지는 평가다.

코로나19, 사회적 소수자가 더 취약해

유색인종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엘리세오 페레스스테이블 미국 국립 소수자보건 및 보건격차 연구소장팀은 학술지 '영국의학저널(BMJ)'에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 및 사망자 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백인 및 유색인 거주자 사이에 최대 2,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발표했다.

영국에서는 중증환자 비율에서 인종별 차이가 나타났다. 영국 레스터대 병원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증환자 2,249명 가운데 아시아나 아프리카계 환자의 비율이 35%가 넘었다. 영국 전체 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13%)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사회적 소수자가 코로나19에 취약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 감염률이나 치명률에 차이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사회경제적 차이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페레스스테이블 소장은 “차별과 그에 따른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 신체 및 면역계가 영향을 받아 기저질환이 더 많이 생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캄레시 쿤티 영국 레스터대 병원 교수 역시 “소수인종은 거주지가 밀집돼 있고 위생 측면에서 취약할 가능성이 높으며, 청소 등 대체가 불가능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탓에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소외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 참고 - 동아일보, 2020.05.15
“정상인 감염시켜 백신개발?”... 코로나가 부른 윤리 논쟁들
<https://www.donga.com/news/lt/article/all/20200514/101052981/1>

유럽, 코로나19에도 녹색산업에 대규모 투자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로 인한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에도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다. 석탄발전 등 탄소배출산업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이 전 지구적 핵심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유럽이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활용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산업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EU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프랑스, 슬로바키아·포르투갈, 영국 이탈리아·아일랜드 등 6개국이 추가로 석탄발전 가동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이어 그리스, 네덜란드·핀란드, 헝가리·덴마크 등이 뒤를 이을 전망이다. 다른 회원국들도 석탄발전 가동 중단시점을 조만간 유럽연합(EU)에 제출할 계획이다.

* 참고 - 한국경제, 2020.04.22
코로나에도 재생에너지 강조하는 유럽... "녹색경제로 경기 부양"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4226670i>



행사소식

감사위원회포럼 2020년 제1회 정기 포럼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포럼. 올해 첫 정기포럼에서는 '정기·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사유 및 해법 모색'을 짚어볼 예정. (등록 및 문의: acforum@acforum.or.kr)

주최 감사위원회포럼

일시 2020.06.09(화) 오전 07:30~10:00

장소 서울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2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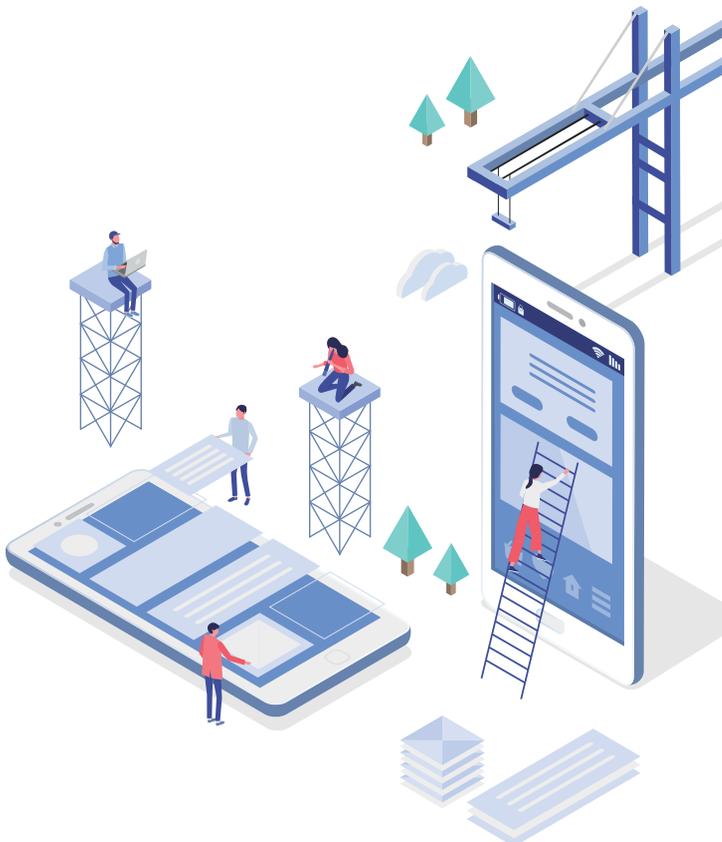
SUSTAINABLE BRANDS '20 - SB LEADERSHIP SUMMIT VIRTUAL EVENT

Sustainable Brands는 지속가능한 브랜드를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로, 매년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6월에 예정된 주요 행사를 11월 30일로 변경하고 6월에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연사들의 다양한 스피치가 있을 예정이다.

주최 SUSTAINABLE BRANDS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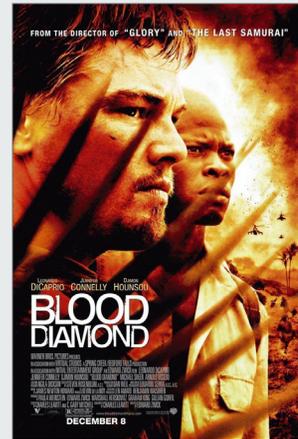
일시 JUNE 1 - 2, 2020

장소 <https://sustainablebrands.com/conferences/sustainablebrands-2020/program/virtual-leadership-summit/>



문화 속 기업윤리

다이아몬드에는 피가 묻어 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



- “백인들은 다이아몬드를 원해서라지만... 우리는 왜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있지?” -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 중에서

서구에서는 청혼을 할 때 남성이 여성에게 반지를 주는 문화가 있다. 프로포즈를 위한 최고의 반지는 단연 다이아몬드다. 영롱히 빛나고 깨지지 않으며 채취도 어려운, 그래서 가장 비싼 보석. 다이아몬드는 엉뚱하게도 아프리카 내전과 깊숙이 연관돼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채굴되어 유통되는지 보여주는 영화다. 천연자원과 광물이 풍부한 가능성의 땅, 아프리카. 그러나 그중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인들을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으로 몰아넣고 있다. 식민지배를 벗어난 아프리카에는 독재정권이 들어섰고, 이들은 다이아몬드를 채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학살하고 아이들까지도 강제노동에 동원했다. 반군은 정권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다이아몬드 이권을 쥐기 위해 아이들을 납치해 마약을 먹고 소년병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산된 다이아몬드는 중간상이 입수해 생산지를 위조하고 서구의 유통대기업에 넘긴다. 유통대기업은 다이아몬드를 독점해 공급량을 조절하며 최고가를 유지한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A Diamond is Forever)’. 다이아몬드를 약혼반지로 인식시키는데 성공한 20세기 최고의 광고 슬로건이다.

오늘도 우리는 아프리카의 소식을 듣는다. 내전, 난민, 가난, 질병, 영양실조. 늘 그랬듯 진부한 이야기들이다. 희망이 사라진 아프리카의 참상은 그들이 게으른 탓인가? 그들을 비극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 이미지출처: <https://movie.daum.net/moviedb/photoviewer?id=42468#88335>

지식1G



유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ODA)의 분류

분류	상환 의무의 유무	원조 유형
양자 원조	무상원조 (증여, 상환 의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 기술협력 예산지원, 부채 경감 식량원조, 긴급지원 등 예) KOICA 프로젝트형 사업, 개발컨설팅사업, 기획재정부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등
	유상원조 (비증여, 상환 의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허성차관 예)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다자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 등 국제기구가 출연(분담금) 및 출자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독자에게 물었습니다



Q1. 평소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기업 J차장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여러 수단으로 도와주는 일 아닌가요? 경제적으로 앞서나가는 나라라면 개도국을 도우라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계시장에서 힘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 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전쟁고아들이 미군에게 초콜릿을 달라고 구걸하던 나라가 어느새 경제규모 10위, 11위가 된 것을 보면 이젠 돌려줄 때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이번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여러 국가에 방역노하우와 관련 물품들을 공급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전염병 퇴치는 우리만 잘해서 소용없으니 각국이 협력을 해야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봐요. 경제, 연구, 문화 다 개별 국가만 잘나서는 소용없죠. 국제개발협력은 인도주의적으로도, 실리적인 목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Q2. 우리 기업들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S기업 P주임

국제개발협력의 계약까지는 각국의 외교와 정치적인 문제지만,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그 이후는 기업의 몫이 더 큼니다. 도로, 철도, 다리 등은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 인프라입니다. 건설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죠. 당연히 기업의 역할이 빛나게 돼요. 기업은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과 교류하게 되고 사회공헌활동(CSR) 활동도 전개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국가 브랜드를 전파하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수원국 정부와 계약을 한 건 우리 정부지만 현지인들과 실제로 얼굴을 맞대는 것은 우리 기업이에요. 기업이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원국이 앞으로 다시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와 함께 할 것인가, 해당 기업이 현지시장에서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끼치겠죠. 국제개발협력을 이어갈 주체적인 역할은 기업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퀴즈



Q. 다음 중 이번 호에서 소개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이 아닌 것은?

- ① 한국국제협력단
- ② 한국은행
- ③ 한국수출입은행
-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난 호 정답자는
박태웅 님, **손영인** 님,
이혜지 님, **김광학** 님,
정만재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acrbusinessethics@gmail.com)

* 성함, 주소(상품권 수령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